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海難事件의防備策 ── 朝鮮近海의海上遭難事件 ──

一

지난 三日夜 仁川 압바다 八尾島附近에서 鹿島丸이 遭難하야 船員及 乘客 六十餘名中 겨우 八名의 救助者를 내고 남어지 五十餘名은 無慘히 魚腹에 葬事하얏다는 事實은 近來의 悲慘事다。그런데 昨夜 全南警察部로부터 警務局에 達한 報道에 依하면 同日 靈光압바다로 出漁한 漁船 五十隻도 遭難하야 그中 十五名은 死亡하고 百五十名은 아즉 行方이 不明하다 하며 咸北警察部로부터 또한 警務局에 到着한 情報에 依하면 東海一帶의 漁船四十隻이 行方不明이 되엇다하니 이도한 八尾島事件에 지지안는 悲慘事다。三日夜라는 가튼 時刻인것을 보아 當日 朝鮮及 阪神및 北海道地方을 掩襲한 暴風雨의 장난인듯 하거니와 暴風雨가 잇슬때마다 이런 慘事가 이러난다는것은 朝鮮의 一大遺恨事라 안흘수업다。

二

朝鮮은 今年 陸上에서 前古未曾有의 水亂을 맛나 百萬의 災民이 氣息奄奄中에 잇거니와 이제 海上에서 조차 이런 悲慘事가 생겻다는것은 朝鮮의 무엇이라할 運命이랴。大自然의 하는 作戱라、이것을 天運에 맷긴다하면 말할것도 업거니와 적어도 科學文明을 자랑하는 今日에 잇서서 이가튼 自然에 依한 人命의 被害가 큰것을 그대로 默過한다면 이런 사람의 犯過는 업슬것이다。아즉 鹿島丸 其他의 遭難原因을 充分히 알길이 업스나 첫재 큰原因으로 생각되는것은 暴風雨의 襲來하는것을 全然 아지 못한데 잇슬것이다。萬一 暴風警報가 精確하고 이것을 津津浦浦에 徹底하도록 施設되엇든들 그날 出港 又는 出浦는 안엇슬것이오、이미 出港한것일지라도 回航하거나 避難하얏슬것이다。警報를 듯지 못하고 또 暴風이 닥처왓슬 때에는 이미 避難所가튼것이 업섯기 때문에 이러한 悲慘事를 내엇슬것이 아니랴。

三

遭難의 原因의 하나는 汽船 其他 船舶의 機械檢査、乘組員의 資格審査、出港當時의 定員如何等을 疎忽히 取扱한 닭이다。萬一 二十八噸의 汽船이 아니오 좀더 큰汽船이엇고 機械가 完全하고 乘客의 定員을 超過치 안케하고、驅動하는 乘客을 操縱하리만치 能熟한 船員들이 엇드면 或은 그 風浪에서 遭難을 免하얏슬지도 모른다。年前 漢江에서 發動船이 轉覆한 原因이 定員以上 태운것과 發動機에 故障이 잇섯든것은 아즉 吾人의 記憶에서 사라지지 안햇지만 이러한 汽船會社 自身의 잘못 및 監督의 不充分으로 悲慘事를 釀出하는것은 非一非再다。

四

勿論 大汽船이오 運航가큰것도 大風浪이때는 斷排이서 否쁜되는 例가 잇지만 이것은 特別한 境遇요 大槪는 施設의不完全、技術의 不完全、注意의怠慢이 重要한 遭難理由로 되어 잇다。그러므로 當局은 陸地에서 여러가지로 交通機關에 對하야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 아니하듯이 海上에서도 이것을게을리하지말지니、海上避難所의 設置、警報 又는 燈臺 其他 航路標識의 增設、汽船會社에의 徹底한 監督、海難救助機關의 設置等은 海難防備上 時急한 問題다。當局의 注意를 促하는바이다。

日中交涉에 干與코저 英米提携를 劃策
第三國의 介入은 斷乎히 排擊!
外務當局의 强硬方針

【東京電話同盟】日中交涉開始를 압두고 英米兩國政府는 共排移를 畫策하고 자조 種種策動하고잇는데 英國政府는 리데駐米大使를 通하야 米國政府에 某種의 申請을行하는一方 클라이브駐日大使로 하여금 日本外務省에 日中交涉에 對한意思表示를 行하엿다고 傳하는데 右에 關하야 五日外務當局은

中國問題에關하야 日本政府는 英國政府로부터 何等申請을밧지안헛다 駐日大使클라이브氏는 去月二十四日 有田外相 堀內次官을 訪問하고 中國問題에關하야 情報를 聽取하엿는데 이것은 大使自身의 發意에 依한것으로 何等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한것이 안이오 또情報聽取의範圍에 지나지못하는것이다

라고 明確히 右報道를 否定하고잇는데 川越大使와 蔣介石氏와의 交涉開始를 압두고 日本의要求를 여러가지로 臆測하야 英米兩國政府는 日本兵力의 侵潤에 依하야 自國權益이 侵害될것을 杞憂하고 日中交涉의圓滿한 進展을 妨害하기爲하야 英米提携를 策하는同時에 香港總督칼듸三卿、駐中大使等을 通하야 中國側에도 策動하는 事實이잇는데 日本側으로서는 日中關係는 日中兩國間에서 解決할것으로 決斷코 第三國의介入을不許한다는 强硬方針을 堅持하고잇슴으로 假令英米等으로부터 何等申請을하드라도 此를 一蹴할수밧게 업다한다

王政復古考慮
프랑코將軍言明

【부르고스三日發同盟】國防委員會의 推擧로 西班牙國總統에 任命된 프랑코將軍은 三日 國民의疲憊에 關하야 適當한 時期가 到來하엿을때에는 王政復古問題를 考慮할터이라 라고 言明하엿다

『苛酷한 條件에는 國民이 不服한다』
日中問題解決의責任은日本에잇다
張學良氏의 日本誹謗

【上海五日發同盟】國民政府는모든方法으로 日本誹謗의國際的宣傳을行하야 日中交涉을 有利하게展開식히려하는데 오래동안沈默을지키고잇든 張學良氏는 三日午後 西安府에서 倫敦데일리헤랄드 特派記者에對하야 日中問題解決의 全責任은 日本에잇다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國民政府는 滿洲事變以前부터 今日까지 一貫하야 平和的協力을繼續하여왓스나 日中問題解決의 全責任은 日本에잇지 中國에는업다 日中交涉은 日本이 兩國間에 立脚點의 相違를諒解하면 尋常히 進行될터이나 日本側에서 萬若 苛酷한 條件을提出하면 二十一個條의 前例를明白한것과가티 政府가 이것을 容認하드라도 國民이承服치안흘것이다 그리고 西北四省의獨立 聯俄容共等이 事하나 余는他의將領과함게 絕對로 中央에 服從하고잇다 이러한說은 荒唐無稽도 甚한것이다

侍從長更迭
大演習後決行

【東京電話同盟】鈴木侍從長은 二、二六事件以後 其進退에 對하야 決意한바잇서 事件의責任을 傷[?]은 全然 俠言되어 蔣近着任의 大任을마할에는 何等 支障이업게되엇스나 辭意는 依然 鞏固하야 湯淺內府 松平宮相도 侍從長의 更迭은 不得已하다하야 鈴木首相과 其後任에對하야 銓衡을 進捗하고잇는데 適當한後任者가 容易하게 發見되지안허 今日까지 遷延되엇는데 鈴木侍從長으로부터 今回의 北海道에 잇서 大演習陪從을 最後의 御奉公으로 辭任할意의 申請을 拜하엿슴으로 大演習終了後 至急 銓衡하야 侍從長을 更迭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其後任으로는 從來 侍從長이 軍國的色彩를帶하기때문에 誤解를 招致하엿슴으로 今後에는 極力如斯한 色彩를 排除하는 眞正으로 常侍輔弼의 大任을 다하기에適한 人格識見을 具備하는同時에 何等不快感情가 업는 純粹한 人物을 選任할 方針을取하기로 되어 宮內省에서는 現皇后宮大夫兼侍從次長 廣幡忠隆侯 海軍에서는 竹下勇 藤田尙德 野村吉三郞等의 諸大將이 候補에 物議되고잇는데 廣幡侯의 候補로 되어잇는 後任皇后宮大夫의 後任問題도 大體로 解決되엇슴으로 結局 同侯가 大任을 拜하게되지안홀가 觀測된다

護國團의 確執으로 墺國政情騷然
파이氏슈타렘베륵公에挑戰
슈公首相께 支持要請

【維也納四日發同盟】墺太利護國團首領슈타렘베륵公은 二日副首領파이元內相을 除名處分에附하엿는데 파이內相은 四日에 이르러 슈타렘베륵公에게 挑戰狀을보내고 如左히聲明하엿다

一切 他의容喙를 不許한다 一方슈타렘베륵公은 슈슈닉首相에게 全面的支持를 强要하야 貴下가 吾等과 協力하지안코 我等도 亦是貴下와 協力하지안흘것이다

라고 通告하엿다 護國團의確執을中心으로 墺太利政府는 異常한緊張을呈하야 一般黨部는 去就를 決定치못하고잇는데 消息通은 슈타렘베륵公이 結局 失脚하지안흘가 觀測하고잇다

關西銀行大會서 馬塲藏相演說

【名古屋電話同盟】關西銀行大會에서 馬塲藏相의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現下日本內外非常時局에對處하야 그打開를 策함과同時에 國運의 進展을 圖함에對하야는 政府는 爲先金融界의 實情에副한 低金利政策을 取하며 一方國民負擔의 輕減을圖하야 國民生活安定에 資코자한다 政府는 內閣成立以來相當한 速度로 低金利普及에努力하고잇는데 이結果 一般金利는 劃期的으로 低下하여왓다 普通銀行及 貯蓄銀行預金及金錢信託에서 相當한 增加를示하고잇다 政府는 現在의 金利를 大體 金融界實情에 副한 것이라 認하고잇다 가까운將來에 特別事情에 變化가업는限 當分 이를 持續할 생각이다 中小商工業及 庶民金融方面에서도 그重要性에 鑑하야 政府는 爲先 商工中央金庫를 設立한것인데 一步를前進하야 政府支出에依한 非營利機關으로 庶民銀行設立을計劃하야 目下成案의 具體化에努力하고 잇는中이다 銀行合同問題에 對하야서는 各方面에서 各種으로 希望도잇슴을 밋는데 金融統制에 關한 政府의 意圖를 諒解하면 特別히 異議가 업슬을確信한다 日本海外貿易의 發達은 眞實로 顯著하며 國家를 爲하야 同慶에 不堪하는데 最近情勢는 樂觀을 許치안는다 政府의 低金利政策趨勢에 作하야 今後日本의 國際的位置에 留意하야 外國爲替에關한 取締를 嚴守하야 爲替相場의 動搖를 防止할 方針이다

內國稅의 稅制改革과 並行하야 關稅制度全般에 徹底的再檢討를하야 國內產業發展에 處함과함께 海外貿易의 飛躍에備할 方針이다 日本現下內外情勢로 보면 幾多重要國策의 遂行上 國費의 增加는 到底不免하는바이다 그經常歲入의 增加는 勿論公債의 增發을 行치아니면아니되다 이公債增發의 結果 所謂惡性인플레를 招來하는일이잇스면 모든政策도 無益이될것이다 公債消化力問題에對하야서는 世間에서 여러가지로 觀測을하는 者도잇스나 政府는 이點에相當한確信을가지고잇다 稅制改革은 昭和十二年度부터 實施되기로되엇는데 日本財政의 赤字狀態로보면 今般稅制整理는 相當한程度의增收를 目的하고잇는것은 勿論이다 이를實行함에는 爲先現在中央、地方사이의不均衡、動產、不動產에關한 不均衡、法人 個人사이의 不均衡 此等整理에 努力치안흐면아니된다 이是正된 負擔우에 稅收入增加를圖하고 또一朝有事之時를考慮하고 中央、地方을通하야 稅制에彈力性을 附與치안흐면 아니된다고 밋는다 今番稅制改革에依하야 政府는 初年度에서 約二億圓、平年度에서 約三億圓을 增收를 圖하게되엿는데 日本國民經濟의 現狀을 본다면 이程度의 增收는 公平하다고 信한다

京畿道府尹郡守會議

【京畿道電話】京畿道內府尹、郡守會議는 五日午前九時半부터 道廳會議室에서 安井知事의 訓示가 잇슨後 左記事項에對하야 協議를 繼續하엿다

一、神社制度에關한件
二、農山漁村의振興에關한件
三、罹災民의 防疫作興에關한件
四、罹災民救護에關한件
五、荒廢貯金에關한件

勅語下賜

【札幌電話同盟】島松野外統監部로부터 大本營에 御還幸하압신 大元帥陛下께압서는 五日午前十時四十分 山本後備步兵中尉 植村退役步兵中尉를 부르시와 各其二十分間 御前講演을 御聽取하압신後 午後一時再次大本營 御出門 同二十分 步兵第二十五聯隊의講評場에 御臨場 御座所에서 閑院參謀長宮殿下를 奉始하와 各皇族殿下 寺內陸相 三毛、下元兩軍指揮官 一同에 拜謁을賜하압시엿다 其後南軍大隊長으로서 演習에 御參加하시와 連日惡天候中에 御奮闘하신 秩父宮殿下及大演習御陪觀하신 三笠少尉宮殿下께서도 御參集 陛下께압서는 天機를 御麗하압시와 種種御歡談이게시압고 秩父宮殿下께서 大演習에 關하야 上奏가 게시엿다고 拜承되다 다음에 閑院參謀長宮殿下의 御奏上을 約二十分間 御聽取하압신後 寫眞撮影場에 行幸하압시와 一同과함께記念撮影을마치시엿다 다음에同聯隊歷史記念館에 臨御 午後三時五十分부터 約三十分間 閑院參謀長宮殿下 勅命을 奉하야 御講評을 御聽取後 陛下께압서는 大演習參加將兵에 對하와 玉音朗朗히 優渥하신 勅語를 下賜하압시고 四時三十分 御講評場 御出門 同五十分大本營에 還幸하압시엿다

─勅 語─

朕이玆에親히 特別大演習을 統監하니 將兵의 志氣가旺盛하고 其成績이大略良好함을 認定하고 기피 此를 喜悅한다 생각컨대 現下 內外情勢는 朕이 軍隊의 團結이牢固、訓練이 精到하야 統帥指揮의 卓越함을期함이 極하다 故等將兵은 協心戮力하고 더욱操守를 堅固히하야 各各 本務에 邁進하야서 朕의 倚信에 應키를 期하라

大防空演習의 御講評下賜

【福岡電話同盟】旬日에亘한 大規模의 南鮮北九州大防空演習은 去二日 成功裡에終了되엇는데 同演習御統監梨本元帥宮殿下의 御講評은 伏見博義王殿下 久邇宮朝融王殿下의 御臨場을 御하야 五日午前九時부터 福岡步兵第二十四聯隊營庭에서 擧行하엿다 當日 梨本元帥宮殿下께서는 御宿舍唐津시사이드호텔에서 自動車로 陸海將星及 沿道住民의 奉迎裡에 御講評場에 行啓하시와 御參列한 伏見宮 久邇宮兩殿下를 奉始하야 演習幹部約百名에對하야 三十分間 御講評을 下賜한後 十時一分 御退場하시엿다 그리고 三殿下께서는 偕行社에서 陸海軍聯合研究會에 御臨하신後 午後零時五十分 賜饌場에 臨御 文武官民代表百八十餘名에 對하야 御陪饌하시고 一時三十分 偕行社御發 伏見宮殿下께서는 唐津시사이드호텔에 久邇宮殿下께서는 博多入港의 乘艦嚴島에 梨本宮殿下께서는 雁巢飛行場에各各御向發하시엿다 旬日에亘하야 擧行한 今回의 劃期的防空大演習은 多大한 收獲과 確固한 自信을 남기고 完全히終了되엿다

米佛通信、英國의 極東關心을報道
日中兩國交涉決裂境遇에는
英自國居留民을撤回

【倫敦四日發同盟】日中兩國關係가 重大化함에따라 英國政府는 情勢의推移에 異常한 注意를 集注하고잇는데 南京에서行할 正式交涉開始를압두고 漸次能動的關心을示하고 外交機關을通하야 關係各國政府의 意向打診에着手하엿다한다 佛하바스通信社倫敦支局報道에 依하면 英國政府는 倫敦駐在各國大使館을 通하야 極東情勢에對한 妥協을 逐하엿다고하며 駐伊英國大使드라이브도氏는 英國政府의 意向을 日本政府에 通達하엿다고 傳한다 特히 英國政府는 日中兩國交涉에 甚히 疑心을 抱懷하고 日本政府는 諸中國의 一部乃至全部에 亘하야 支配權力乃至保護權을 確立하지안흘가 하는 懸念까지 하는 模樣인데 倫敦支局은 信憑할만한 個의 報道라하야 左와 如히 述하엿다

一、英國政府는 極東에잇서 最近의 情勢에對하야 重大關心을 禁할수업다는 旨의 强硬한 意思를 日中兩國政府에 表示하엿다 特히 日本政府에對하야 中國全土에亘하야 保護領을 確立할 境遇에는 英國政府는 到底히 無關心할수업다는旨를 通達하엿다

一、그리고 南京政府에對하야 日本政府의 要求에 抗爭한 結果 戰爭을 惹起하지안흘지 하는不安을 참을수업다는旨를通達하엿다

但 U·P支局은 英國政府가 아직中國에關한 九個國條約을 援用할 意圖가업다는旨를 主唱하고잇다 그리고 日本政府의方針에對하야 英國政府가 種種測을하는것은 事實인듯하다 米國聯合通信社倫敦支局도 消息通의言明이라하야 中國의如何한 部分에對해서라도 日本政府가 保護領을 確立하면 英國政府는 無關心할수업다고 述하엿고 英國政府는極東情勢에對하야 異常한疑心을 抱懷하고 日中兩國間의 交涉이 決裂될 境遇에는 長江一帶의 自國의居留民을 撤回할 意向이잇다고 報道하고잇다

陸相歸東後政府에 公約履行을强迫
庶政一新은이미實現期에到達
政局本格的活動展開

【札幌電話同盟】陸軍特別大演習도 五日에終了됨으로 札幌滯在中인 廣田首相 前田鐵相 潮內相 寺內陸相等各閣僚及 陸海軍의 將星 政黨有力者等은 大槪五日午後에出發하야 東京으로歸還하기로되여 政局은 再次 本格的活動을 展開하게되엿다 陸軍에서는 寺內陸相歸東後에는 專혀 庶政一新을 言論時代가아니라 實行의域에 到達하엿다는 見解下에 首相을비롯하야 關係方面에 現內閣出現以來의 公約履行을强迫할 模樣이다 그리고 六日札幌을出發하야 歸東할 磯谷軍務局長은 陸相의뜻을바다 歸東後 諸般準備를 整齊하고 陸相歸東後의 政治的折衝에 便케하야서 關係諸懸案解決을促進식히려하는데 陸軍이 意圖하는바는 左와如하다

一、軍事豫算問題

明年度는 豫算八億二千二百萬圓中 三億圓은 陸軍이明年度以後六個年에實現하려하는 新國防充備計畫의 初年度分豫算으로 成하여잇는것으로 반드시 承認을 求하려하는것이나 明年度豫算과 倂行하야 明年度以降繼續計劃의大綱도 繼續豫算으로 全部의 承認을 要求하야 財政當局의 諒解를 求하야 計劃全般의 承認을 要求할터인데 航空兵力 在滿兵力 一般裝備 作戰資材의充備 兵備의 增强을企圖하야 어데까지 其實現을 圖하고 豫算閣議에서도 其原則的承認을 要求할것이다

一、行政機構改革問題

陸軍의 案은 寺內陸相이 提出한 改革具體案은 海軍과의 間에 一致된 意見에 依한것으로 參考案과 가튼 가비여운意味는 勿論아니다 行政機構改革은 國策遂行上 絕對必要하다는 確固한 認識에 基한것이며 따라 具體案의 核心이 되는 內閣調査局에代할 國策의綜合統制企劃機關의 創設이 速히 實現되기를 希望한다 各種의弊도 現內閣制度에잇서서는 避除할수업슴으로 合理的으로 其改組改革을 行하기를 期待한다 要컨댄 從來의批政을 革新하려하는 決意와 實行力과를 가지고 其方向에 促進을 實現함에잇다

一、電力問題

電力民營國有案은 動力資源의 確保 產業의發展 農村負擔의 輕減 平時軍事工業의 發展等으로부터 着手하야 其實現을期하는 三相會議는 速히 具體案을 裁定한後 閣議에附議하야 國策으로 決定할을 要함 荏苒日時를 經過하야 其決定을 遷延함과如한 態度는 絕對排擊할것이다

蘇聯、西班牙에 義捐物品輸送

【莫斯科四日發同盟】蘇聯勞働組合은 西班牙人民戰線을 擁護하는立場에서 全蘇에 亘하야 義捐金을 募集하고잇든바 마침내 蘇聯汽船시리아이인號에 右義捐金으로購買한 食糧品을 滿載하고 四日午前 오뎃사港을 出發하야 一路西班牙로 向하엿다 同船에는 小麥粉二千二百九十噸 砂糖六百二十五噸 肉罐詰七十三萬五千個 珈琲코코아十二萬五千罐을 積載하엿는데 目的地에 到着하면 西班牙人民戰線의 銃後에 守備하는 婦女子에게 分配할터이라 한다

蔣氏南京歸還
現地首腦部俄然緊張

【南京五日發同盟】廬山에잇서서 日中交涉對策을講求하고잇든 蔣介石氏는 五日午後二時三十分 廬山으로부터 飛行機로 南京에歸來하야 即時軍官學校官邸에들어갓다

【南京五日發同盟】川越大使入京後 三週間 全然 停頓狀態에잇던 日中交涉이 蔣介石氏의 歸京으로 이제야 最後段階에 到達하엿슴으로 日本大使館當局은 俄然 非常한 緊張을示하야 川越大使를 中心으로 須磨總領事 田尻書記官 雨宮 中原兩武官等 現地首腦部는 大使官邸에서 重要協議를하고잇는데 六日桑島東亞局長의 到着으로 다시 最後重要協議를 行하야 蔣介石氏와의會談에備하기로되엿다

公正會委員會

【東京電話同盟】貴族院公正會는 五日午後一時半 昭和會館에서 政務委員會를 開催하고 地方稅改革에 對하야 湯澤內務次官의 說明을聽取하엿다

宋期叙勳

【東京電話同盟】
朝鮮政務總監 正四位勳三等 大野綠一郎
叙勳二等授瑞寶章

夕刊後市況 五日

◆東京短期◆
東新 後引 一二七三〇 高低 一三八〇〇
日產 八九九〇 八三〇〇 (低) 八三五〇

◆大阪短期 氣配◆
大新 一七二一〇 (一〇〇低)
鐘新 一七三八〇 (二〇〇高)
日產 一八三〇〇 (一〇〇低)
東新 一三七二〇 (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三六〇〇 先限 七三四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〇五〇 先限 五八二〇

人事·集會

◆秦學文氏 十一日午後三時 京城驛着 二泊後滿洲向發豫定
◆李龍祚氏(吉林省稅局長) 醫學會關係로入京中 人事次來社

早稻田大學 第一號 出來

秋季新學年

이絕好의機會를逸치마라

讀者는 모다、本大學의 校外生으로서 待遇한다。

小學卒業의 讀書力만잇스면 누구나 容易히 읽을수잇고 質問에도 應하며 各種受驗의 指導도 行한다。

一日에 一時間이나 二時間式만 事務餘暇에 工夫를 하시면 充分히 實力이 붓는다。

詳細는 內容見本에依하야 아시라

中等學校程度

講義	月謝	期間
中學講義	月一圓	前期一ヶ年 後期一ヶ年
商業講義	月一圓	一ヶ年半
高等女學講義	月一圓	一ヶ年半
電氣工學豫備講義	月一圓	一ヶ年

專門學校程度

講義	月謝	期間
政治經濟講義	月一圓二十錢	一ヶ年半
法律講義	月一圓二十錢	一ヶ年半
文學講義	月一圓二十錢	一ヶ年半
建築講義	月一圓三十錢	一ヶ年半
電氣工學講義	月一圓三十錢	一ヶ年半

申込所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二一二三 電話牛込三二四五

講義錄

內容見本

見本은 各科別로되여잇스므로 葉書로반듯이自己가希望하는 講義錄을 分明히써서 申込할것 곳申込하라。

人氣는學生美展에 第一日觀衆千名

質로나量으로나藝術의精華

滿堂에넘치는生新한氣分

전조선중、초등생들의 인긔를 총집중하여오든 본사주최 제일회 전조선학생미술전람회는 드디여 오늘부터 그호화로운 막을열어 백화란만한 자태를나타내다 오늘은 아츰열시부터 열두시까지는 초대권을 가진이게만 공개하고 오후한시부터 일반에게공개하엿스나 정각전부터남녀학생과 및 일반이 젊은이들이일반구경꾼이 서로아플다투어 오후 여섯시까지에는 천명을 돌파하야대혼잡을 일우웟다 이전람회는 중、초등생들의 작품전람회이나 전조선 방방곡곡에 숨어잇는 천재중 초등생들의 정성에넘치는 작품천여점중에서 엄선에엄선한결과 주옥가튼 걸작만뽑바내인 작품만 진열한만큼 그예술수준이 상당한 수준에달하야 질로나량으로나 미전(美展)과협전(協展)에 비교하야조곰도 손색이 업슬정도이다 어린 학생들의 천진란만한 구상(構想)과、채색(彩色)은 오히려 로련한 사계의 대가를경탄시키여 한번참관한이는 모도다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작품을보고 칭찬안는이가업다 이에 본사는 상당한자신을 가지고 이전람회를 만천하독자에 이바지하는바이다

京城高等工業 廿八回展覽會

중앙시험소(中央試驗所) 경성고등공업학교(高工) 경성공업학교(京城工業)공동주최의 제이십팔회 전람회(展覽會)는 오는십일일(일요일) 청우(晴雨)를 물론하고 오전아홉시부터 오후네시까지 일반시민에게 공개한다고 한다 이전람회는 공업사회(工業社會)화를 목표로 시험소(試驗所)및 학교의 사업성적(事業成績)을 소개하고 각과의 설비、생도들의 학습상태를 관람식힌다 이외에 여러가지 여흥(餘興)도 잇스며、현상우표(懸賞郵票)도잇다 판매품(販賣品)으로는 이층가옥 목재한채、가구、철긔、직물、비누、화장크림도히등 다수이며 일반관람자의 편리를 돕기위하야、간단한 식당과 설비도잇다

窃盜兩名被捉

서대문서에 체포된 좀도적두건

—◇부내관동정(館洞町)오십오번지과자제조소의 직공으로 잇는 최윤봉(崔允峯)은 사일정오경에 모처에서 자전거한대를훔처가지고 죽첨공립보통학교(竹添公普)앞을지나든중 서대문서원에게 붓잡혀신문을 밧고잇든현장을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엿다

—◇황해도 평산군(黃海道平山郡)출생으로 일정한주소가업는 윤대병(尹大炳)(二○)은 이일오후 경성역 대합실에서 양복하나와 『레코-드』열석장이드러잇는보퉁이를 훔처가지고 오일오전여섯시쯤에 부내화천정(和泉町)부근을 배회하다가 서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다

竹添町食料品商에 거스름돈詐欺漢

途中바람가티潛跡

오일오후네시쯤 부내 죽첨정(竹添町)이정목일백삼십구번지 식료품상 엄택(嚴澤)지점에 흰내의와 거문양복바지를입은 사람하나이 차저와서 『리푸톤』홍차한통과 『빠터』등 통조림일원칠십구전어치를 산후 집에가서 십원짜리를 줄터이니 거스름돈을 가지고 가티가자함으로 그상점에서는 심부름꾼 심현재(沈鉉宰)(二○)라는배달부를시켜 가티가게하엿든바 그사람은 죽첨정이정목화란(和蘭)령사관압페이르러서 거스름돈과 물건을바더들고 령사관편으로간다음 어데로도망하엿다하야 소관서대문경찰서에 통지하여 왓슴으로 그서에서는 곳부내각서에 수배하는한편 거스름돈사기한의 행방을 찻는중이다

貧困한獨學青年을 울린"口腔衛生學"

本町署에窃盜嫌疑로被逮

耽書의犯罪

독학(獨學)의 청년이 청운의대망을 가슴에품고 서울을 올라왓스나 학자가곤난한탓으로 한발자욱을 잘못드딘것이 그만 우지장밟거름이 된 이야기가잇다—

삼일오후 세시경 본정(本町)서점부에서 거동이수상한 청년한사람을 본정서원이 그서에 인치하야 취조하여본결과 다음과가튼사실이 판명되엿다

그는 경남통영(慶南統營)출생으로 현재시내 팔판정(八判町) 김모(金某)의집에 유숙하고잇는 김용목(金容穆)(二三)(假名)으로 과거 오개년동안 순전한 독학으로 의사시험(醫師試驗)을보려고 전긔본적지모병원에서조수노릇을하면서노력하다가 상당한자신을가지게된그는 지난구월초순 경성에 올라와서 전긔주소에머물고 도서관을다니며서 일의전심으로 준비중이엿다한다 그리다가 어느날 본정통으로 산보나간 그의눈을 끄는것이 모배화점서적부책장에 끼여잇는 구강위생학(口腔衛生學)이엿다 그러나 그에게는 책살돈은 한푼도업섯고 책가질마음은 간절하야 그만그책을훔치고마럿다 이것이 그를망치게한첫거름이다 이에자미부치엿든지 바로인치되든 그날도 그배화점에서 책을훔치려다가 그만그와가티 인치된것이라한다

並木町어지푸테리

병목정(並木町)일백사번지 조상술(趙祥述)의 넷재딸 종화(鍾和)(二)는 오일『지푸테리아』로진단되여 순화원(順化院)에입원치료하고잇다

爆發物을滿載한 旭丸船員을嚴調

大連에서木浦에온것을拘禁

砂糖密輸事實도綻露

긔보=지난구월 이십팔일오전두시에 목포(木浦)항구에 물과식량을 보충할양으로 드러왓다가 그날오후 일곱시반에 목포경찰서원에게 검색을 당하야『다이나마이트』이백개와공업용뢰관(工業用雷管)칠십칠개를 실고잇섯든것이 발각된 욱환(旭丸)에 탓든 할빈시(哈爾濱市) 해산물상(海商物商)영전정장(永田正長)(三)과 제주도(濟州島)중앙으로 대련시엽부통(大連市葉部通)욱환선장 리원룡(李元龍)(三)외선원네명등 여섯명은 목포경찰서에류치하고 계속취조중이든데 그들의 말을드르면 그배선주가 양복장사를 경영하다가 실패하고 부정어업(不正漁業)을할모양으로 전긔폭발물을 손에너케되엿것이라하나 그것을구해드린경로가 분명치안음으로 더욱 엄중히 취조중이라한다

그리고 그들은 구월십팔일에 대련을떠날적에 백근너흔 사탕스므가마니를 밀수입하여가지고오다가 강화도왕림리(江華島王林里)최모(崔某)를통하야 팔아먹은사실도 탈로되여서 세관(稅關)에서는 상당한 처치를하기로 되엿다한다

現場潛水作業으로 女屍一個또發見

鹿島丸沈沒事件續報

【仁川支局電話】지난 오일오전 경비선과 발동선 일곱척이 록도환(鹿島丸)이 침몰되여 잇는 현장에 갓스나 파도가 심하야 구조선이 도리여 위험한 경우를 당한일도 잇다한다

그래도 구조대 일행은 데리고 갓든 잠수부(潛水夫)두명을 수중에 드러가게하야 작업을 하든중 공긔를 넘우 만히 보낸까닭에 잠수부의 가슴이 뚜려저서 한사람은 작업을 중지하고 한사람이 겨우 작업을계속하엿다

그런데 현장에는 조난한록도환의선체가 그대로잇슴으로 『현장』에『부-이』를 매고잡어당기자 『한쪽』이 빠젓고 날세도저물며 조수가 밀려드럿슴으로 어찌도할수업시 그대로도라왓다

그리고 엿새날오전열시부터또다시 현장에 출장하야 구조를 계속할터이라한다

그런데 오월의 현장수색에는 녀자시체한개를 발견하엿는데 그는 선원명부(船員名簿)에는 업는사람이다

瑞山郡雲山面餘美里 韓明順(二三)

인것이 판명되엿다

利通丸은救助 大連으로曳航

긔보=사일밤에 진남포해사출장소(鎭南浦海事出張所)장으로부터 체신국(遞信局)에 드러온 무선전신을보면 지난이일밤에 인천에서 구십해리(海里)되는 황해(黃海)가운데서 『샤프트』가 절단되야 항해할수업시 되여잇든 중국긔선 리통호(利通號)는 사일오후 여덟시반에 만철(滿鐵) 대련환(大連丸)에 승객과선원 백팔십여명이 무사히 구조되여 시속(時速)칠노트로 대련으로향해 끄을려갓는데 오일아츰에 대련에 도착할 예정이라한다

별보=사일에 인천에서 떠난 삼십삼공동환(三十三共同丸)으로부터 사일저녁에 인천에드러온 무선전보에 의하면 황해가운데서 항해불능중에잇든 중국긔선 리통호의 승객 일백삼십명을 공동환에 수용하야 대련(大連)으로향행중이고 그밧게도 모다무사하다한다

城北町會에 二百圓寄附

吳慶煥氏美擧

시내성북정 일백팔십사번지오경환(吳慶煥)(二八)씨는 일본대학재학중의 학생인데 작고한 그부친오한근(吳漢根)씨의 유지를밧들어 일금이백원을 성북정회에 긔부하야 유위한사업에 써달라고 부탁하엿슴으로 동민들은 대단히 감사하다고 한다

大東商業生自殺

身病을悲觀끄테

養子간十七歲의少年

몸이약한것을 비관하고 자살한 학생—부내 명륜정(明倫町)사정목 사십일번지성세경(成世慶)씨의양아들로 대동상업학교 삼년생 계동정(桂洞町)일백사십칠번지의 왕경(王慶)(一七)은 오일오후한시쯤 상사실호 그의생가어머니홍씨의 집에서 『스트리기니네』를 다량으로마시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곳부내 견지(堅志)의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가하엿스나 너머나 다량으로약을먹은관게로소생하지못하고드디여 절명되엿다한다 자살한원인은 그는본지몸이약하야 학교에다니다가 올봄부터휴학을 하고 오로지수양을 하고잇든바 병이 마음대로 낫지를안음을비관한나머지에 자살한것이라고한다

地方法院支廳에 一審裁判權擴充?

全朝鮮司法監督官會議에서論議될

朝鮮裁判所機構改革問題

전조선 사법감독관회의는오일부터 총독부에서 열리엇는데 법무국에서는 조선재판소긔구의 개혁과 판검사의 증원등에대하야도 이회의에서 의견을드를터이라한다

즉 법무국에서는 현재각지에 잇는 지방법원의 지청을 일본내지의 구재판소와가튼 제일심을할 권한을가지게하야 일반소송관게자의 편의를 도모하며또 재판사무의 증진을 도모하는것이다

현재의 법원지청이라는것은지방법원의단독부와가튼 재판사무를 보는곳도잇스나 대개는예심(豫審)사무의취급을 하며단독부의 권한도 적으며상태임으로실질적으로는 전부 지방법원에 사건이 집중하게되야 판검사의부족등으로 사건의 심리에는 오래시일이걸리는터이다 그럼으로 금후 조선재판소의긔구(機構)의 개혁을 단행하야 지방법원지청을 제일심재판소로하야 그권한을 확충하며 판검사의 증원을 도모하야 재판사무의 능률의증진을 도모하려는것이라한다

妓生에게凱歌

기생들과 기생권번과의사이에 버러진소송——전남 광주부본정(光州府本町)오정목 일백삼십칠번지 광주권번소속기생 유련홍(兪蓮紅)등 열명은 그곳 남정(南町)이십일번지 주식회사 광주권번대표자 김종현(金宗鉉)을 상대로 화대(花代)칠백십삼원륙십구전을 지불하라는 소송을지난정월 광주지방법원민사부에재긔하야 이태다투어오든중 이일 고등법원에서 원고 기생들도승소판결을 바더 개가를 불으게되엿다 사건내용인즉 원고는 피고권번에 가입하되 피고는 원고들의 화대를 출연(出捐)하는 시간에따라 매월십일에과 심일두차례에 나누어 지불하는대신에 그수수료로 화대의 일할을떼기로 약속하고 소화칠년사월부터 버리를 하여왓는데 피고는 화대를 손님들에게 다밧지를못하엿다고 원고에게 지불하지 밧지못한것도 준다는것은아닌즉 다줄수는업다고하야 일이심에서 패소하고도 끗끗내상고까지 하여왓섯스나 권번과기생과의관계 기타증거로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화대를 지불하여야한다는 리유로 전긔와가티 고등법원에서도 긔각판결을 내리여 기생들은 드디여 권번에서 화대를밧게되엿다

伯林올림픽戰後譚

管弦樂과코러스에 安君、李孃도出演

新興獨逸意氣에痛歎

세계의 시청을오로지한곳에 모으고 지난 팔월일일부터 십륙일까지 독일백림에서 열린 올림픽 성전(聖戰)을 처음부터끗까지 구경하고 더욱이 손긔정(孫基禎)군과 남승룡(南昇龍)군이 마라손제패를 완성하기까지에 유일한후원자 정상희(鄭商熙)씨는 지난 사일 롱구(籠球)축구(蹴球)선수와 함께 경성에 도라왓다 일행을마즈려 도중까지 출영한긔자는 이번올림픽대회중의 자미잇는『에피소-드』와 감격되든장면의 실감을드러 이에소개하면 다음과갓다

(사진은 정상희씨)

▼……때는 팔월일일 십이만대중이모인 백림그류네왈트의 『스타디온』의 성관을 련상하며 정씨는감개무량한 어조로 말문을 열엇다

▼……이번 올림픽의 시설은 더욱나위업시 조왓습니다 크나큰 『스타디온』에 십이만명이나 되는 대관중이 순식간에입장할수도 잇고 퇴장할수도 잇섯습니다

▼……개찰구의엄격한데는 놀랏습니다 물론입장권이나 『파스』가 업스면 드러갈 생의도 못하겟지만 구라파에서는 어린아히들까지라도 다아는 핀랜드의 주왕(走王)『누루미』가 엇저다가 파스를 이저버리고와서 입장식에 드러가겟다고 특별교섭을하다가 그만코를떼우는것을 목도하엿습니다 그러케 엄격한 규률적이엿습니다。

▼……대회장에는 그러케 설비와 장식을 잘해노앗지만 비교적 소학생이나 어린아히들이 보히지안헛습니다 그것은 물론 입장료가 비싼관계도 잇겟지만 독일인의 국민성이 우리와는달른것을 엿볼수잇섯습니다 조선서는 어른은 구경을고만두고라도 어린아히들에게 구경을 시켜주겟다는것이 보편된 마음이지만 독일사람들은 아히들이 보는것과 어른들이 보는것을 구분하야잇는것가탓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이야기를 할터인데 입장식의실감부터 말슴드릴가요 정각이 되자 『스타디옴』으로 희랍(希臘)을선두로『알파벳트』의 순서로 나란히하야 백、흑、홍、황색의각색의 각국선수들이 입장하니장내에 이러나는 환성과 노도와가튼 박수소래、그리고『슈트라스』박사가 지휘하는 삼백명의『오케스트라』、일천명의 남녀『코-러스』의 화희와 웅장한행진곡을 드를때에 그당시의 나의마음은 엇더타고 형언키어려웟습니다

그후에 알고보니 그장엄한『오케스트라』단에는 조선이 나흔『바욜리니스트』로 백림국립음악학교에 다니는 안병소(安柄玿)군이 한자리를 차지하고잇섯고 남녀코-러스단에는 그곳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리애내(李愛內)양이끼여 잇섯다더군요

▼……시골뚝이가 백림구경을 가니 때가올림픽 기간중이라각국인이모임대로모여서 백림시가의 교통이번잡하엿는데다가『꼬-스』를조차 독일말로 나타나니 알수가 잇서야지요 그래서 다짜고짜로 마음대로 건너갓드니 교통순사들이 질책일거냥참으로친절히 인도하야주니 그친절미에는 탄복아니할수업섯습니다 그뿐아니라 일반상인들도 언어가 통치못하면 통역을 자긔네들이 이집저집서 다려다가 알도록해주엇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은공중도덕이 보급된감을 주엇습니다 그야물론 더욱이 올림픽기간중에는 외국인에게 친절히대하라는『히틀러』총통의엄명도잇섯기때문이겟지오만은……。

▼……백림시가를 거려단녀도 불구자와 거지를 볼수업섯습니다 그는외국인에게 불쾌한인상을준다는 의미에서 백림전시가의 불구자와거지는 전부 올림픽기간중에는 시골로 축출을시켜버렷기때문이라는것도 나중에 알엇습니다 (계속)

(사진은 안병소군과리애내양)

進行列車에投身自殺

사일오후아홉시 사십칠분에부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 이백십이번지 경의선(京義線)궤도부근을 배회하는 청년이 동아홉시오십분에 경성역(京城驛)에 도착하는 렬차가 전긔 지점을통과할지음에 궤도북쪽으로부터철로가운대에 몸을던저서 자살을 감행하고 말엇다

이급보를 접한 서대문서에서는 곳서원이 출동하야 검시한결과 피투성이가된 시체는 목이뚝끈허저버려 바로 드려다볼수 업스리만치 처참한정경을 이루엇는데 소지품에의하야 조사한결과자살한청년은 경도시중경구남좌옥정어지상(京都市中京區南座屋町御池上)에 거주하는 오복상(吳服商)산전우치랑(山田友治郞)(三四)으로판명되엿다 부근에호러진보자기속에 현금오전과 자긔주소가 수신소(受信所)로된 금삼천오백원을 보내달라고 쓴전보뢰신지 한장이들어잇스며 자살한원인은 자세히 알수업다 그리고 이청년은 지난달이십팔일 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에잇는 촌상려관(村上旅館)에투숙엿다가 삼십일에 일본내지로간다고한후 떠난일이잇다고한다

南村各幼稚園學校의 掛鐘만全部窃取

被害十餘件、發覺被捉

삼일밤 주소부정의 박승원(朴昇遠)(二一)리성배(李聖培)(二八)(모다 전과일범)두사람이본정서에 인치되엿다 그들은 지난구월초순부터 명치정(明治町)일정목경성유치원(京城幼稚園)을 비롯하야 남촌일대의 유치원 소학교를전문으로 기둥시게를 훔처서 파라먹엇다 한다 그피해건수가 모다십여건이나된다

吸煙場兩處發見、서대문서에서

서대문서에서는 일요일인 사일에두건이나 아편흡연장을 발견하엿다 하나는 서울의 암흑가인서소문정(西小門町)이며 또하나는 서대문서에 린접한 평동정(平洞町)이다

▲사일오후 세시쯤에 서대문서 사법계형사 두명이 서소문정(西小門町)이십팔번지 압을지날때에 이상한 내음새가남으로 평소에 주목하고잇든곳이니만치 동형사대는 시각을머물지안코곳 실내에 돌입하엿든바 예측하엿든바와가티 아편흡연장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든 산동성(山東省)출생 아편밀매급흡연 전과자인 중국인리문수(李文秀)(五八)를체포하는동시에 다수한아편과 연관을 압수하엿다

▲동일 오전열한시삼십분쯤에 서대문서원이 청결검사로 경찰서에린접한 평동정(平洞町)구번지의구호 팽양가(龐榮家)의 집에 드러갓든바 장남되는경옥(慶玉)가 황겁한나츠로 뒷방에뛰어감으로 전긔서원이 수상히녀여 쪼처가본바 다량의아편과 연관등을 압수하엿스며 흡연자중의 한사람인 유동정(鍮洞町)[illegible]번지에사는 인삼소개업 리희균(李熙均)(四)도 체포하엿다

兩人의奇禍

오일오후 네시반경 부내 청량리정(淸凉里町)산(山)십번지아페서 차고에서 나오는 자동차뒤를 전차가 치여 맛츰 그자동차에 타고잇든 신설정(新設町)백이십일번지 김윤화(金允和)의처 천금녀(千金女)(四)와 숭인면창위리(崇仁面長位里)삼십칠번지조병국(趙秉國)(三)에게 각각일주일이상의 부상을 입혓다 이것은 전년전차운전수 시내련건정(蓮建町)팔십이번지 최화영(崔華英)(三)의 부주의라고한다

自動車에少女重傷

사일 오후두시쯤되여 황금정(黃金町)사정목백삼구번지압 전차정류장 부근에서 광화문통(光化門通)칠십구번지 민영상(閔泳[illegible])(三)이가 운전하고 황금정[illegible]정목으로 가는자동차에 때마츰 전차에서 나리는 대화정(大和町)이정목십팔번지 룡곡녀학교(龍谷女學校)이년생 약원죽자(若原竹子)(一五)가 다치여 좌우편 다리에 약일개월가량 치료하여야 할상처를밧고 현재식촌병원(植村病院)에서 치료중이다

"朝體"綜合競技 拳鬪、씨름戰

來十六日부터本社大講堂서

參加申請은十日까지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에서 가장人氣를 集中케하는 拳鬪、씨름兩競技는來十六、七、八日 三日間 本社大講堂에서 一齊히 열릴터인데同競技의申請期日은 拳鬪는十日이며 씨름은十二日인데 벌서부터京鄕各地에서 參加申請이 遝至하고잇서 空前의 盛況을 豫期하고잇다

神宮競技大會 籠球對陣決定

第十二回朝鮮神宮大會籠球競技는 來十六、七、八日(三日間)京城運動場코-트에서 열릴터인데 中學部及 專門部對陣을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中學部

【第一回戰】

A、大東商業對第二高普

B、仁川商業對善隣商業

C、徽文高普對京城師範

D、平壤高普對海州高普

【準決勝】

AB勝者對龍中對 道商勝者

CD勝者對一高對大邱農林勝者

◇專門部

A延專對法專 B普專對醫大

神宮排球對陣決定

第十二回朝鮮神宮體育大會排球試合은 女子中等、男子中等、女子一般、男子一般의四部에 나노아 十六日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各部對陣은 다음과가다

▲女子中等

十六日午後一時(第一回戰)

A元山高女—同德女高

B龍谷高女—大邱高女

D海州女高—淑明女高

C群山高女—進明女高

E平壤高女—釜山高女

十七日午前八時半(第二回戰)

A의勝者—B의勝者

京城第二—C의勝者

京城女高—D의勝者

京城第一—E의勝者

(準決勝)十七日午前十時半

(決勝)十八日午後一時

▲男子中等

十六日午前九時(第一回戰)

第一高普—第二高普

(準決勝)十六日午前十時

京城師範—善隣商業

龍山中學—一回戰勝者

(決勝)十八日午前十時

▲女子一般

(決勝)十八日午前十一時

鐵道女子—女子師範

▲男子一般

(準決勝)十七日午後一時

城大豫科—遞信局

(決勝)十八日午後二時

鐵道局—準決勝勝者

凱旋의孫、南兩君 十一日頃京城에

本社에선船中에祝電

세계마라손의왕자 손긔정(孫基禎)군과 남승룡(南昇龍)량군은 이태리선(伊太利船)『콘테롯소』호를타고 개선도상에잇는바 지난사일오후네시상해(上海)를출범하는미국배(엠푸레스·어브·러시아)호에승환하야 칠일오후네시신호(神戶)에 도착할예정이라는바 량군은 동경(東京)까지갓다가 십일、이일경에야 정든고향경성에 도라올터이라한다

본사에서는 개선을압두고 항해중에잇는 손、남량군에게 그 위로(慰勞)를축하하는전보를오일오후두시경 『엠푸레스·어브·러시아』호에 쳐서환영의뜻을표하엿다

學生卓球

京城帝大主催의 第九回全朝鮮學生卓球大會는 來十七日(午前九時個人戰) 十八日(午前九時團體戰)兩日間 京城帝大醫學部卓球場에서 擧行할터이라한다

遞信11 京電8

體育데이實業野球大會 遞信對京電戰은 四日午後三時부터 京城球場에서 京電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十一A對八로遞信勝

◇投捕=(京電)田村、高木—中川 河野(遞信)高田、中島—古賀

京電 (330100001—8)

遞信 (06010004A—11)

法政6 早大4

早大對法政第一回野球戰은 四日午前十一時부터 神宮球場에서 早大先攻으로 開始한다 結局六A對四로 法政勝

◇投捕=(早大)若原—佐武(法政)赤根谷—藤田

早大 (000201100—4)

法政 (00103002A—6)

明大8 東大4

明大對東大第一回野球戰은 四日午後二時五十分부터 明大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八對四로 明大勝

◇投捕=(東大)久保田、北川—綠川、今中(明大)田所—宇井

東大 (000010120—4)

明大 (000310301—8)

世界野球第三回戰 一對一·양키스勝

【紐育三日發同盟】世界野球爭覇戰第三回戰은 絶好의 野球日을마지하야 三日午後一時半부터 球審、마젤카-스氏(내쇼날리-그)、巨人軍先攻으로 開始한바 二A對一로『양키-스』가 勝捷한바 양키-스는 二勝一敗의 成績을가지고잇다

運動界集會人事

▲鄭商熙氏(올림픽視察員)歸京人事次五日午前本社來訪

회충 촌충엔 오리가 도루사 가제일

치질엔 엥구루 가제일

치질은 누구든지 흔히일는병인데 대단히괴로웁고 더러운 병이라 심하면 흉문에흔구멍이 뚤식세식난다 보통수술을하느니 단근질을하느니 야을하느니하나 근을도려내지는못한다 치독과균을속으로업새지아니하면 다시싹이나서 도진다 엥구루는 흉문에넛키도하고 바르기도하는 편리하고효력이강한 약인데 이약을너면 약이녹아퍼저서 기피든독에 신효하다 알치질 수치질 피나고 고름나는치질 잘듯습니다 탈항증에 원경한데는일원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보내드립니다 병이좀심하면 이원분을쓰시요

해소 기침엔 에치세 가제일

사람이 생명이잇슬동안에는 호흡을하는데 이호흡기관에병이잇스면 생명에관계가된다。 해소、기침、담천증은호흡기관의병이다。 감기로기침을하야도록이아푸고 골이쏘다지는것갓고 기운이탈진하는대 해소기침병으로 오래고생하면 제일무서운폐병으로변하기쉽다。 신선당명약『에치세-』(ECHISE)는 해소、천촉、만성기관지가다루、급성기관지가다루、경해、기관지확장、백일해、등에신효합니다。 폐병기침에도좃소。 약값은 고중에상원 중에이원 경한데는일원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당일로보내드리오。 병이좀심하면상원분을쓰시오

속병 체증엔 겡오- 가제일

사람의위장(胃腸)은 신체모든기관의원동력(原動力)이된다 위장이약하면 만병의근본이 되다고하야도과언이 아니다 소화불량、속병、체적 겡오-(KENGO)는약효 위대하야일시적이아니고 위를보하고위장의근본조직을 다시소생하고 소화를잘식히고 그성분도세계에서 유명한 약재가 만히들고 특효한신발명 약재가 합리적(合理的)으로 된 위장약이다 병이 심하면 삼원분을쓰시오

만입부스약이되지 (生蘗質)로병에 약이다 안먹거나 먹거나 광고와틀리는점이잇거나 약을곳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보내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側(五)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番

京城版

市街地計畫案
實施案은 原案? 添削?
市計委員會서 府答申을檢討
憶測土地熱은危險

지난번에 총독부에서 발표한 경성시가지계획안(京城市街計畫案)은 경성부회의 답신(答申)을어더 회송하엿는데 총독부안에잇는 조선시가지계획 위원회에서 토의한결과 경성부회의의 답신대로 결정될는지 혹은 그위원회의 첨삭정정(添削訂正)으로될는지 결정되게될 모양인바 이달안으로는 결정되게될 모양이다 이 확정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비로소 도로부설로 말미아마 헐려버릴 건물이라든지 또는 안심하고 빈터에 집을지게 되도록 될터이라한다 그러므로 요지음에 항간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그설계안만보고서 길이 나게될터이니 지갑시 올르게되고 또는 땅갑시올 트게될터이라고 서로 추측하야 허어시 벗작갑스로 흥정을 하는일도 잇는모양이나 너무급히 서둘느다가는 이다음에도로혀뜻 밝게라격을 만나게될우려도 업지안켓스므로 일반의 경계가필요하다한다

東門署管內秋季淸潔

시내동대문서에서는 당새날부터다음 순서로 관내추긔청결을 시행한다는데 오랜장마뒤의 청결인만큼 정안의 누근곳과 가구칙구는 해빗에 특히 잘쪼일 것이며 하수구변소등의 청결은 물론 우물의 청결을 배우심하여야된다고한다

施行月日 施行區域
十月五日 蓮池町 孝悌町 臥龍町一部 梨花町
明倫町一、二、三、四丁目 東崇町一部 臥龍町一部 孝悌町
忠信町一部 昌信町一部 東大門町一部
十月六日 鍾路四丁目一部 仁義町一部 鍾路五丁目 昌信町一部 鍾路六丁目 崇仁町 昌信町一部
十月七日 淸凉里 新設町 新設町
龍頭町 踏十里
十月八日 回基町 典農町 里門町 安岩町 新堂町 敦岩町
十月九日 新堂町第一區 新堂町第三區 祭基町 新堂町 下往十里
十月十日 新堂町 第四區 新堂町第二區 金湖町 上往十里 十月十一日 杏堂町 鷹峰町 玉水町
十月十二日 沙斤町 馬場町(舊) 新馬場町을除함
【備考】 當日雨天인때에는最終日에順次미루어實施함

現金千三百圓
衣類四千點
永登浦住民의丹誠

【永登浦】 北鮮水災同胞에 대한 동정금품은 영등포주민들의 후한개인으로 혹은단체로 잇는바성의를 다하야 돈과의복가티 동정금품을모아속속본사영등포지국으로 기탁하야 온돈이 이미일천삼백여원에달하고 의복가티가 사천수백여점에 달하엿는데 의연금품을 연출한 사람중에는 뜻가티 수해리재민이면서 그래도가족을 일코 전지 전래의농토와 가장집물을 모조리물에 떠나려보낸사람보다는 낫다는 적성으로 아침머이를 난우워내사람도잇고 입엇든옷을 버서내노은부인네와 벙어리돈을 톡톡터러내인 유치원아기네들도잇서서 의연금품을 중간하는 지국원의눈물을 자아내게하는 일이 만헛다고한다

最終日來到한
赤誠의同情金
仁川支局에서取扱

【仁川】 또다시 태풍의 위협을 밧고잇는 남조선지방의 참화의 비극은 급박한 얼롱과 한가지 이중삼중의 곤란을 격고잇다고 간본보 인천지국에 쇄도한 동정금품만하야도 적지안햇다한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지난삼십일은 동정금품모집 최종일이엿다 동일도역시 열렬동정하매조한 원과 무산아동의 적성인 인부 학원(仁武學院)원아일동의 삼원이상천동이잇섯다

仁武學院院兒一同 三圓二十錢
仁川武道館道友會 三圓六十錢
仁川共同販賣組合人夫一同 十圓
合計 十六圓八十錢
累計 五百四圓八十四錢

乙丑漢水先驅가진
"新東面民"美擧

【永登浦】 각방면으로부터 모이는 금번수해동포 동정중 여기에 눈물겨운 정성의 발로가 또한 가지잇다 을축년 한강대홍수에 전과 가산을 일조에 일어버리엿든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반포리(始興郡新東面蠶室里盤浦里)양동민들 비롯하야 전면적으로금번에도 피해이엿한원가량의 만흔피해를 보게되여 이때 눈물난날들을 계속하야 지내오든터인데 과부에 사정은 과부가안다고 금번리재민의 참경을듯고자기들의쓰라린 경험을 생각하야면서지국장(金基善)씨가 필두에서면내 유지를 중심으로 의연금품을 모집하엿섯는데 그중압모인것이 의복 이백팔점 현금사십팔원사십전에 달하엿다고한다

明達靑年會員義擧

【永登浦】 시흥군 신동면서초리(始興郡新東面瑞草里)명달청년회(明達靑年會)는 일우농촌의 일개모범으로 단장리인구(李麟求)부단장 박귀선(朴貴先)양씨지도하에서 영농방법과 농촌개발의운동을하여 오든터이엿는데금번대홍수로 참경을당한 동포를위하야 품을파러 모으게된이원구십일전을주일전에 재지에보내달라고 본사영등포지국에 각탁하엿다고한다

新東公普校新築落成式

【永登浦】 시흥군(始興郡)일면일교제실시에 의한 신동 공보교(新東公普校)는 이번에그신축공장마로인하야 부득이 예정보다 까지라고한다

神秘의地下景
蝀龍窟探勝
本社永登浦支局主催

【永登浦】 본사영등포지국에서는 잇는 대자연의 아름답고 장엄한 주동되여그간 새교사로아변동행사로 매년금강산 탐승단을 모집하야 흥진만장의 도시인사들로 하여금 다소의 위안이라도 어게함으로써 각방면의 찬동을바더 오든터인데 금번에는동룡굴(蝀龍窟)을 탐승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가튼 규정하에 일본려행협회 조선지부 경성지방회(日本旅行協會鮮支部京城地方會)와동업조선신보사영등포지국(朝鮮新聞社永登浦支局)등의 공동주최로 동탐승단원을 모집한다는데 이동룡굴은 평양(平壤)에서 만포선(滿浦線)을밧구어타고 약네시간만에 도착되는 룡문산(龍門山)어구에잇서서 부내의종유동(鍾乳洞)의규승으로라들이도저히 상상치도 못할만큼 지하풍경을 일우워 누구나 그신비적위관에 접할때에는 자연의 위대한힘과 조화의 묘한것을 놀라지안홀수 업다고한다 때는마침 천고마비의 절호의려행시절이라 금수의 성장을 꾸미고 도시인사를 손질해부르고 성하고 정신의 정화를 도모하는것은 우리생활상 가장 의위잇는 일일것이매 일반은 만히참가하여주기를 바란다하며상세한 것은 동지국에조회하면 친절히 회답한다고한다

▲日程 十月十六日午後十時十六分 永登浦驛出發(京城驛、龍山驛에서乘車해도無妨) 同十八日午後十時廿二分歸着(途中平壤서一泊하고 各古蹟名所等을見學)
▲參加資格 京城府內 又는隣接府外居住者로서 往復三里의徒步에勘能한다면 男女를不問코誰何든지 參加할수잇슴
▲會費 一人前十五圓五十錢 會費中에는 往復汽車賃 旅館費 辨當代는勿論 記念寫眞代까지 包含되여잇슴
▲申請期日 十月十二日까지 會費添付하야 主催側에申請할것

神饌畓稻의
初刈式
七日、農事試驗場에서

경긔도 농회주최로 오는칠일 오전열한시에 룡대문밧 경긔도 농사시험장(農事試驗場)에서 신찬답도(神饌畓稻)조예식(初刈式)을 거행할터이라한다

本町署管內秋季淸潔

시내본정서에서는 오는칠일、칠일양일간 관내의 일제청결을 시한다고한다 일정과청결법요령은 다음과갓다 그리고 만일그 일정에 되지못한 사정으로 청결을 할수업는때에는 그사유(事由)를 서면또는 전화로 그서에 청결날을 통지하여 달나고한다

▲十月六日 吉野町一、二丁目 古市町 南大門通一、二、三、四、五丁目 御成町 南米倉町 北米倉町 蓬萊町一丁目 太平通一、二丁目 長谷川町 武橋町 黃金町一、二丁目 三角町 茶屋町 旭町一、二、三丁目 本町一、二、三丁目明治町一、二丁目 永樂町一、二丁目 南山町一、二、三丁目倭城臺町 日之出町 壽町 水下町 水標町 長橋町 若草町
▲十月七日 黃金町三、四、五、六、七丁目 本町四、五丁目 櫻井町一、二丁目 花園町 林町 大和町一、二、三丁目 舟橋町 笠井町 新町 東四軒町 西四軒町 並木町 初音町 光熙町一、二丁目 芳山町
萬一實施當日雨天인때에는 따로實施日을 通知함

淸潔法實施要領
一、邸地及家屋內外를 淸掃할것
二、疊、建具什器、寢具衣類는取出하야 日光에쪼일것
三、床下는 床板을 取外하야 掃除하고 通氣를 조케할것 但浸潤한場所에는 乾燥한 土砂又石炭殼를撒布할것
四、下水溝、汚水溜를 浚渫하고 破損個所를 修繕할것
五、便所、塵箱를 掃除하고 破損個所를 修繕할것
六、井戶側溜所流等을 掃除하고 破損個所를 修繕할것
七、汚物 前各項에依하야 生한 汚物은 決코 下水道路에 放棄하지말고 芥箱其他一定個所에 모아노흘것
八、消毒下水、便所、塵箱、害所流等에는 必히 石乳劑、等稀薄液을 撒布消毒할것

광나루橋落成式
十三日橋上에서擧行

경성서 강원도강릉(江陵)방면으로통하든 인중도로인 광나루에 그다리가설공사는 지난구월도에서는 오는십삼일오전열한시 삽식일에 준공되엿스므로 경기에 그다리우에서 준공식을성대하거행할터이라한다 이다리는 조선서제일긴 경남귀포(龜浦)의 락동교(洛東橋)다음되는 둘재의 긴다리로 총공비팔십사만삼천원으로써 대림조(大林組)가 공사를마타서 재작년팔월십사일에 공사를 시작하야 지난삼십일에(만이년만에)준공된것이다
이다리는 서울쪽으로 물을의부분이 기리사백이십구미돌오십센치 폭이 구미돌구십센치인데 차도(車道)가 오미돌오십센치 보행길이 이미돌이십센치이다 그러고 광주군(廣州郡)쪽으로 륙지우의부분이 기리 륙백팔미돌십센치 폭이 구미돌인데 차도가 오미돌오십센치 보행길이 일미돌칠십오센치이다 다라전부의 기리는 일천삼십삼미돌륙십센치이며 다리의 면적은 구천칠백이십오평방미돌이나된다
경성쪽 강물우의 부분은『겔버형(型)강구행교(鋼構桁橋)이며 광주쪽 륙상부는『라멘식교대(橋臺)는 이기(二基)로콩크리트 다리이다
『겔버』콩크리트 다리이다 교대(橋臺)는 이기(二基)로경성쪽 중력식(重力式)콩크리트로 맨드럿는데 노피칠미돌이며 광주쪽은 부벽식철근(扶壁式鐵筋)콩크리트로 노피 십미돌이다 교각(橋脚)은 삼십사기(基)로노피는 십이미돌이 부설된도로는 경성쪽은 팔백사십이미돌 광주쪽은 이천오백이십미돌이다 이다리가설공사에 사역한인원은총계십팔만오천명이나된다한다

本社見學

시내 서대문정에잇는 피어선기념성경학원(皮漁善記念聖經學院)추긔신입생중 이십삼명은 최익선(崔益善)(學生)씨 인솔하에 본사를 견학하엿다 (사진은 학생일동)

雙虹舞 【6】

方仁根 作
金奎澤 畵

虫先生 (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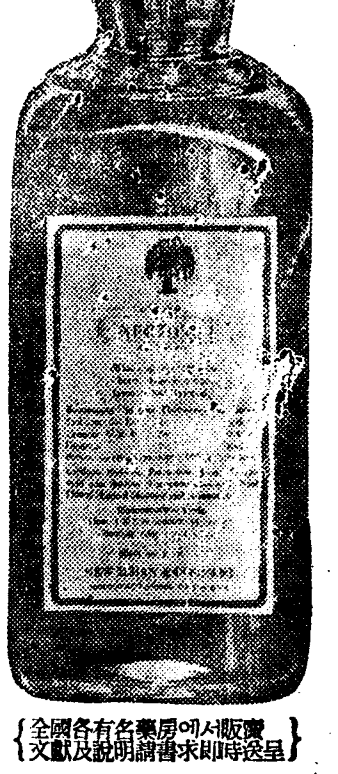
며칠후에 은명은 집안이 조용하고 사랑에는 아무도업는틈을 타서 광훈의 방으로 들어갓다。 그것은 전부터 늘 벼르든일이지마는 지금것 못한것이다。 첫재 광훈이 거처하는방이 웬일인지 몹시 보고십고 궁금증이 낫다。 그의방을 어떠케차려노앗는지 알고십엇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호라비의방이매 지저분하게 늘어노앗슬것이니 그것을 자기손으로 정돈해주고십흔것이다。
은명은 이편전에 서울갓다가와서광훈을 처음만날때 웬일인지 몹시 숭배되엇다。 그가 자기가 졸업한 모교의 선생이라는데도 다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엇거니와 광훈이 어디까지나 침착하고 고결하게 생긴것을 은명은 깨달을수잇섯기때문이다。 그러고는 은근히 여학생들에게 광훈에대한말을 물어보니 학생마다 칭찬하는데 은명은 공연히 가뻣다。 그래서 개학이되여 서울로 다시 갈때면 몹시 섭섭하지마는 광훈이란 훌륭한 청년이자기집에 잇다는것이 몹시 든든하게 생각되엇다。 그광훈은 장차 자기와 끈허지지못할 인연을 매즐것가티 느끼엇다。 어떤때는 광훈에게 편지를 하고십흔생각이 간절하지마는 용기가 나지아니하여 종내못하엿다。 혹시 광훈에게서 먼저 편지가오지아니할가하고 은근히 기다리기도 하엿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할때는 것봉을시도 륵별히 정신드려 쓴것은 혹시어머니가 광훈에게 것봉을 써달라고 부탁 할것가타서 그리한것이다。 어떤때에는 어머니에게 광훈의생각을 이르키게하려고 편지에 앵도가 몹시먹고십흐다고 하엿다。 그것은 광훈이잇는방압헤잇는 홍당미혜 앵도나무가잇는까닭이다。 그러나 광훈에게서는 종래편지도 오지아니하고 또는 광훈이것봉을 써서보낸것도업시 여전히 아버지의 글시이엿다。 그동안에 광훈이 자기집에서 나가지나아니하엿나 하는것이 제일걱정스러웟다。 그래서 어서방학이되여 집으로가서 광훈을만나고십헛다。 은명은 멀어지나고해가 지날수록광훈에게 대한애착이 점점 커지서 인제는 자기가슴에 광훈은 커다란 존재로 들어안진것을 알엇다。 그것을 광훈도 알아주엇스면 하는 생각과 광훈도 자기에게 그러한생각을 품고잇는것을 알고시펏다。
은명은 얼른 광훈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다덧다。 공연히 가슴이 두군거리고 무슨 도적질이나 하는것처럼 무서웟다。 따뜻한 볏발의 명랑한 혜비치 문을 환히 비치여 방안은 눈이부신듯 환하엿다。 은명은 방을 한번 휘―둘러보앗다。 방안은 그다지 너저분하지도 안치마는 그러타고 정돈된것도 아니엇다。 때무든바지저구리와 드러운 내의 가방 바닥에 노혀잇는것을 볼때 은명은 몹시 부끄러운듯하여얼른 눈을 딴데로 돌리엇다。 그러나 은명은 다시 그것을 채곡채곡 개어서 이불을에끼워두엇다。 그것을 만질때도 조금도 드럽기는커녕 웬일인지 손끗헤 이상한 쾌감을느끼엇다。 그리고는 벽을둘러보니 거기는 나뷔니 버러지니를 말려서 못바늘로 찔러노앗다。
벽이 외롱그림을 그린드시 이런것들로 꽉찻다。
『아이그어머니나!』하고 은명은 깜짝놀래엿스나 다시 빙그레우섯다。 그러케 해논꼴이 작란가타 우습기도 하려니와 또한편 귀중한것도 가타엇다。
『오―라 이러니까 충선생이란 별명을 듯지』하고 은명은 다시 한번 우섯다。 그러나 그중선생이 몹시 정답게 생각되엿다。
은명은 방안을 모조리 치워노코 구석구석에잇는 몬지를쓸엇다。 허트러진 책을 정돈도하여노코 구석구석에잇는 몬지를쓸엇다。 몬지가나서 문을 여러노앗스면 조켓지만은 번젓하게 문을활작 열어노흘수도업고 몬지를먹으면서 방을 쓸엇다。
은명은 일을 하여도 이러케 정성스럽게 또는 정신차려 해보기도 처음이려니와 이처럼즐겁게 일해보기도 처음 경험이엇다。
은명은 방구석을 치우다가이불을 싸은 귀짝엽흘 드려다보더니
『아!』소리를 치고 뒤로 벌렁잡바젓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눈을 가리우고 버들버들떨며 뒤로 물칫물칫 물러나아갓다。

靴を丈夫にする
HHH
サンエッチ靴クリーム
삼 엣 취 구 두 크 림
本舖 東京 大阪 株式會社 新藤商店

이것봅시오
이것한사시로
맛이 천하일미!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10—4

秋季大特賣
品質十個年
絕對安全!!
品物お氣に
召さぬ時は
交換自由!
◀最新流行形▶
精工舍製クロム16型懷中
1 七石(市價九圓品)特價三・五〇
2 七石(市價十一圓品)〃四・三〇
3 七石(市價十三圓品)〃五・九〇
4 七石(市價十六圓品)〃七・八〇
5 七石(市價十九圓品)〃九・四〇
瑞西製16型クロム懷中
イ 七石(市價六圓品)特價二・六〇
ロ 七石(市價十二圓品)〃三・七〇
ハ 七石(市價十七圓品)〃四・六〇
ニ 七石(市價廿三圓品)〃六・七〇
ホ 七石(市價廿六圓品)〃七・九〇
ヘ 十五石(市價廿七圓品)〃八・四〇
瑞西製11型クロム腕卷
8 七石(市價九圓品)特價二・七〇
9 七石(市價十四圓品)〃五・七〇
◎ウオルサム16型懷中
A 七石(市價二十圓品)〃七・五〇
B 七石(市價廿七圓品)〃九・三〇
가타로구청구는정수이전보내시오
●前金註文ハ送料不要●代引ハ每個送料四十錢分郵便切手ヲ送附下サイ送料前納者以外代引絕對謝絕
東京淺草松葉町二二 振替東京六六八五七 天賞堂

イカリソース (이가리소—쓰)
日本一의産額 日本一의品質
日本一의信用
日本에第一



海州肺病療養院에서도
버드나무票 네오톤 을使用한다!
Neotone

海州救世療院은 朝鮮에 唯一한理想的 肺結核療養院으로 創立以來十餘年에 許多한 患者를 治療하엿다。
그러면 救世療養院에서는 어떠한 藥을使用하는가? 數多한良藥을使用하는中 弊行直輸入의 歐米各國에 高名한 治療劑를 多數選擇愛用하며 特히 補肺·神經强壯·食慾亢進의 目的으로버드나무票『네오톤』(NEOTONE)을 代表的으로 使用한다。此藥은 現代醫學原理에符合되는 高貴原料를配合하야 調製한名藥으로 葡萄酒와恰似한佳味藥인대 過去數十年 歐米各國에서 代表的補藥으로 使用하야 其名聲이滿天下에 普及된藥劑입니다。그러나 이와가튼 本劑의品質及効力優秀로因하야 近者數多한 模造品이簇出하엿사온즉 本劑를 愛用하실때에는 반드시 貴下가 信任하시는 病院이나 醫師에게 其眞否를 問議하시든지 또藥房에서는「버드나무票」네오톤의 包裝을 確實히 檢視하십시요。

【包裝】 350・CC 1900・CC 3000・CC 3785・CC

네오톤直輸入 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 大連市浪速町一九 上海圓明園路一六九

全國各有名藥房에서販賣 文獻及說明請書求即時送呈

本社接受水害救濟品 (十月五日現在)

物品合計 十五萬三千三百十五點

穀物合計 四十五俵 一斗五升

天道教吉州宗理院教人一同

衣 一二四點

金昌順 一點▲金用熙 五點 李容瑞 二點▲張利善 四點 … [illegible]

宣川支局經由

衣類 二六〇點 書籍 一四冊

內譯 宣川商業實修學校生徒 教科書十四冊 同亦樂幼稚園生徒 衣類十九點 龜城塔洞教會 衣類二百四十一點

信川支局經由

衣 一八八點

金寶信 二點▲金永姬 二點 金仁淑 二點▲白瑕玉 二點 … 李恩淑 一四五點信川公立普通校生徒一同

觀水町町會

衣類 一三〇四點

洪正求 三〇點▲梁根煥 五〇點 金淑卿 八二點▲飯谷嘉禮 六點 … [illegible]

益善、慶雲町町會

衣類 二〇九一點 白米九俵八升四合

[illegible]

安東縣支局經由

衣 二六四一點

金成實 三點▲劉永順 一點 … [illegible]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七、〇〇〇、〇〇朝鮮社會事業協會京畿道支部取扱▲五、六三〇全北益山郡望城面洞村振興會(每日申報社扱)▲一〇〇、〇〇京城府漢江通一五鐵道局指定請負人事務所(京日社扱)▲四、〇〇平安北道龜城郡沙器公立普通學校生徒▲五、〇〇京城府東四軒町四八樂賢▲五、七三臨城標草耕作組合職員▲一〇〇、〇〇京城府大島町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二〇、〇〇同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井上計▲二〇、〇〇京城府武橋町李相玉▲二〇、〇〇京城地方專賣局北青出張所惠山派出所職員▲二、〇〇臺灣、內埔公學校職員生徒(高雄新報社扱)▲一四、八五東京市小石川區在住朝鮮人一同(小石川警察署扱)

十月二日現在累計 二〇九、二二五、九三

▲朝鮮日報社取扱

(지난 九月十六日에 發表한 三一五〇、六八錢에 對한 內譯의 一部)

▲八、〇五 朝鮮少年軍四十七虎隊拔內譯 笠井町有志 五錢金… [illegible]

[illegible]

黃昏 (195)

韓雪野 作 安夕影 畫

그전후 (七)

복술이가 겨우 그집을 찾게 가지고 바거서 사람이 울음을 … 열을하여 먼저 뛰어나오자를 은 길렴이었다.

「아! 인제 오셔요? 들어오시오」

길렴이는 들어오기를 청하엿다.

「아니, 준식씨를 잠게 만나볼일이 잇서서요……」

복술이가 이러케 말하자 길렴이는 얼핏 알아채고

「네, 네……그거 잘 알아보앗소?」

하고 물엇다

「네……얼른 준식씨 좀 불러주서요」

「네……」

하고 길렴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버린 동안 복술은 캄캄한 뜰악 한모퉁이에서 준식을 기다리고 잇섯다.

얼마후에 준식이가 발소리를 죽여가며 바그로나왓다——

「복술이——」

「네——」

나즌 소리와소리가 흥응하며

하고 말하다가 별안간 생각이나서 복술은

「그런데 오늘은 우려가 만나는줄 눈치채엇슬 것드군요…… 그래서 아까는 혹시 준식씨가 어데로 피하셧나 하면서 하고 어데오는지 몰래 … 저정햇서요」

「여길 알 까닭이 잇소? 헌데, 뭐래요?」

「글세, 절도에 준식씨만은 자거나, 안내를 하라거니 하는군요, 그게 말속에 말 엇는거 아닌가요?」

「공연히, 추리를려지오」

「하지만 가서만나보시는것이조치안캣서요?……참 애기들은어찌되엇슴니까?」

「지금, 진행중입니다……그러면 나만 잠시 다녀 오기로 하지요」

「네 기왕 가실것가트면 지금 가시는게 조켓서요. 잇다가 다른사람과 함께 가게되면 혹시 수상히 생각할런지 모르니까요」

「그건 뭐, 상관업습니다만, 나도 한시라도 속히 만나보고 십고, 또 웬만하면 오늘밤으로 원

두사람은 가까히 접근하엿다.

「웨 들어오지 안소?」

역시 나즉한 소리엿다.

「먼저 상의할것이 잇서서요」

하고 복술이도 나즉히 대답하엿다.

그리고는 먼저 경념이를 만난 경과와 그가 주고간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공자판 취서 대강 말하엿다.

「그래 그걸 지금 가지고 왓슴니까?」

「네, 이것입니다」

어둠을 더듬어 손과손이 맛부듸첫다.

「그러면 들어가봅시다」

「아니, 그리고 동림씨가 와잇서요」

「동림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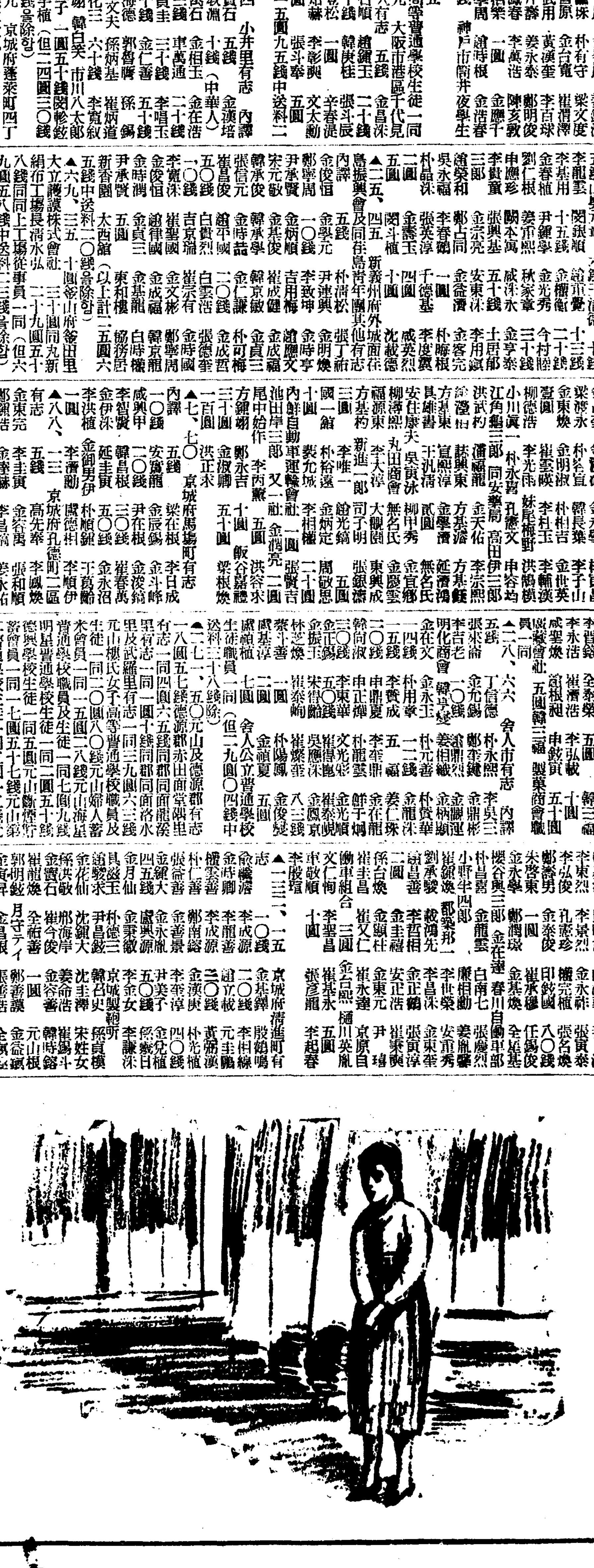
준식은 놀라며 그러케 물엇다.

「준식씨를 이방으로 꼭 만나고 십다는데, 만나보시면 어떗슴니까?」

하고 복술은 동림이의 말을 대강대강 보고들은대로 이야기하엿다.

「나를요? 그래, 지금 어데잇슴니까?」

「금세왓서요. 준식씨 주인으로 갓는지도 모르겟습니다 그려나, 꼭 우리집으로 다시올겝니다. 두집을 왓다갓다하노라면 오늘밤중으로 만날수 잇스리라고 녜스니까요……그러치만, 지금쯤은 식씨 주인에 가서 기다리면만나게될겝니다」



만히……」

준식은 제가 할 절차를 이러케 말하다가 그만 말끝을감추어버리고

「조흡니다. 만나기로 하겟습니다」

하는 순간, 준식이 자신도, 또 복술이도 이상한 감격을 느꼇다. 울듯울듯한 감정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누가 가지 가지안허도 조흘가요?」

「가지 가긴요? 절대 필요업슴니다」

준식의 말에는 무슨 구든신념이 번득이는것 가텃다.

「그러면 저도 만나지못한채 해주서요, 근래에는 준식씨와 좀 만나지 못하다구 햇서요」

「뭐, 그런거야 아나 모르나 상관 업지만 저편에서 만나자는거니까 우선 만나주는것이 당연한체겟지요」

「동림이도 무슨 결심이 잇는것 가튼데요. 새삼스레 만나자는걸 보니까요. 그러나 암만해도 아주 나쁘게될 사람가지는 안허요」

「좌우간 내게 맛겨주시오……그만 들어가봅시다」

준식은 이러케 끈허말하고는 한걸음 압서서 방으로 들어갓다.

복술은 뒤미처 약간 떨리는 가슴으로 방안에 들어섯다. 먼지낀 람푸아래에 빗나는 시선들이 그의정신을 잠시 황홀케 하엿다.